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서로 받으라

[롬 15:1-2]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는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고, ‘연약한 자’는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연약한 자의 약점’은 마음의 의심과 거리낌, 불안과 걱정, 잘못된 생각 등을 가리킬 것이다. 교회에는 확고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며 선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마 20:28)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사셨다. 그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본이 된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시대에 유다 왕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을 체험했고 그것은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긴 세월을 통과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일들을 조금하게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소망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5-7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돌리게 하시기를 원 하노라. 이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교훈하시는 자이다. 또 그는 위로의 하나님, 즉 고난의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심과 위로로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사랑은 서로 생각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받는 것, 즉 서로 영접하는 것이며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는 것이다.

교회의 일치는 단지 외형적 일치가 아니고, 생각과 사상의 일치이어야 한다. 교인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일치이다(고전 1:10).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치이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족들과 약점들을 가진 형제들을 용납하고 서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 교리들에서 이탈한 이단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비본질적 문제들과 특히 지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해야 하고 또 그들이 진리의 바른 지식과 이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한다.

[8-12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 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 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특히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으셨다.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 정죄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열방들의 구원과 감사 찬송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인용했다(시 18:49; 신 32:43; 시 117:1; 사 11:10).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과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받으신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그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낮추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하며, 신앙고백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주요 내용들이다. 그러나 성도는 미래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믿음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위로자와 격려자로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 믿음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충만--이것이 성도의 정상적 삶의 모습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풀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영접해야 한다. 1-2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 가운데서 방황했던 자들의 죄를 구속(救贖)하셨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오래 참고 서로 영접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4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와 위로, 기쁨과 평안의 충만함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굳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영광스런 부활과 복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홍해의 기적

[출 14: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돌이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방황하여](BDB, NASB)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본절의 바다는 ‘홍해’를 가리킨다(13:18; 15:4, 22).¹⁾ 본장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4, 8절).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그가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표현은 그들이 멸절될 것을 암시한다. 애굽 왕 바로가 직접 왔던 것 같다(4, 6, 8, 10, 17, 18, 28절).

[5-9절] 흑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데리고 가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

1) ‘홍해’라는 원어는 ‘갈대의 바다’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에뤼드라 달라스타(ἐρυθρά θάλασσα) 즉 ‘붉은 바다(홍해)’라는 뜻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주로 홍해 북단의 갈라진 두 개의 만, 즉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을 가리킨다.

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천 데 미치니라.

애굽 왕 자신이 그 추격을 주도하였고 직접 참여했다고 보인다.²⁾

[10-12절]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 상황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무시하였고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다.

[13-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아야 한다. 둘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다. 믿음은 고요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대적자들과 싸우실 것이다.

[15-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 갈대 바다는 갈라지며 길을 낼 것이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라는 이 특이한 표현은 본장에 세 번 나온다(16, 22, 29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실 것이며 그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는 옮겨 그 뒤로 행했고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그것이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원문)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셨다.

[21-25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는 큰 동풍을 사용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고 바닷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은 다 그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것을 어지럽게 하였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어렵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심을 느끼며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려 하였다.

[26-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니라.

2) 바로는 그 추격 때 죽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의 왕은 투트모세 3세이었을 것이며 그의 통치 연대는 주전 1482-1447년경으로 추정된다(J. B. Payne's *Outline of Hebrew History*).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 곧 큰 능력의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엮으셨다. 바닷물은 다시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 그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덮었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 본장에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22, 29절).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같이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다. ‘큰 일’이라는 원어(히아드 학게돌라 **הַגְּדֹלָה הַזֶּה**)는 ‘큰 손’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일’을 가리킨다. 홍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장은 성도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음을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서 그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과 위기를 직면하였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것 같은 큰 위기를 만났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고난과 위기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은 살아계신 섭리자,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해야 했다.

오늘날도 우리는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체험치 못할 것이나, 기도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손, 즉 큰 능력의 일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실 전능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수요일 설교 | 에브라임의 술취함과 교만

[사 28:1-13]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술 취하며 교만했고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며, 화 있을진저 . . . 죄잔해가는 꽃 같으니.” 3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밟힐 것이라.” 이스라엘의 물질적 부요와 힘과 영광은 죄잔해가는 꽃같이 되며 밭에 밟힐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강하고 힘있는 앗수르 나라를 불러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고 그것을 발로 밟고 그 땅을 정복케 하실 것이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 . . 술 취하는 자[는] . .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 잠언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술 취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그 남은 유다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과 상쾌함이 되는 좋은 말씀이 될 것이다(5, 12절). 시편 73: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신명기 10:12-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힘써 지켜야 한다.